



☛ 홈 > 뉴스 > 북한소식

북, 지난해 농구 대중화 바람

2002년 01월 15일 (화) 12:00:00

연합뉴스 ✉ tongil@tongilnews.com

(서울=연합뉴스) 정연식기자 = 지난해 북한에서는 농구 대중화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14일 전해졌다.

북한의 청년전위는 최근호(12.27)에서 `올해(2001년) 청년동맹 조직들과 청소년들은 농구바람을 세차게 일으켰다`면서 `청년동맹 조직들과 청소년들은 학교와 공장, 농촌 등 이르는 곳 마다 수많은 농구장을 꾸려 놓고(설치하고) 농구를 대중화했다`고 보도했다.

신문은 이어 `특히 학교들이 농구바람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수많은 보조 농구대와 농구장을 갖추고 농구를 대중화하는데 앞장섰다`고 밝혔다.

또 `고등중학교들에서는 낮은 학년으로부터 높은 학년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농구 기술동작을 가르키고 경기를 정상적으로 조직해 농구로 흥성거리게 했다`고 전했다.

신문은 황해북도 신계군의 대정고등중학교의 사례를 들며 `학교는 체육관에 농구장을 꾸려 놓고 농구전문화소조(농구부)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는 한편 모든 학생에게 농구기술을 가르켜 주면서 대중화에 커다란 성과를 이룩했다`고 덧붙였다.

© 통일뉴스(<http://www.tongilnews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